

이틀 연속 한일전? 일정으로 보는 김경문호 2연패 도전

오늘부터 슈퍼라운드 돌입...16일 일본 맞대결
17일 결승전 또 만날수도...선발 로테이션 중요

김경문호가 프리미어12 2연패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에 나선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예선 라운드 3전 전승으로 마쳤다. 6일부터 8일까지 호주, 캐나다, 쿠바를 맞아 한 수 위의 전력을 과시하며 연승을 달렸다.

C조 1위를 차지한 한국은 예선라운드에서 호주를 상대로 거둔 1승을 안고 슈퍼라운드를 시작한다. 슈퍼라운드에서는 A조 1,2위 멕시코와 미국, B조 1,2위 일본과 대만을 상대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일본이 예선 전승으로 1승을 안은 채 슈퍼라운드에 입한다. 반대로 호주와 미국, 대만은 1패의 부담을 갖고 슈퍼라운드를 치러야 한다.

9일 슈퍼라운드가 열리는 일본 도쿄에 입성한 김경문호는 10일 공

식 훈련 후 11일 미국과 첫 경기를 치른다. 12일에는 대만을 상대한다. 13일과 14일은 휴식, 이어 15일 멕시코, 16일 일본을 상대하며 슈퍼라운드를 마무리한다.

슈퍼라운드 1,2위는 17일 결승전을 치른다. 3,4위는 같은날 3위 결정전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에 진출하면 토요일인 16일과 일요일인 17일, 한일전 '주말 2연전'이 성사된다.

예선라운드에서 '철옹성 마운드'를 과시하며 전승을 거둔 한국, 3경기에서 단 1점만을 내줬다. 평균자책점은 0.33(27이닝 1자책). 슈퍼라운드에서도 마운드의 힘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선발 로테이션이 중요하다. 최대 5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발투수는 4명 이상 필요하다. 예선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양현종과 김광현이 원투펀치를 이룰 전망이다. 차우찬과 박종훈, 이영하 중 2명이 남

은 자리를 채워야 한다.

11일 미국전에 양현종, 12일 대만전에 김광현이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원투펀치를 앞세워 2승을 추가, 3승을 기록할 경우 결승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15일 멕시코전은 중남미에 강한 '잠수함' 박종훈의 등판을 예상해볼 수 있다.

16일 일본전 선발투수는 변수가 많다. 멕시코전까지 치러 결승 진출을 확정하더라도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허투루 치를 수 없다.

양현종과 김광현이 미국전, 대만전에 차례로 등판할 경우 16일 일본전에는 차우찬이나 이영하가 나서야 한다. 한국 좌완이 전통적으로 일본에 강했다는 점에서는 차우찬이 등판할 수도 있고, 한국 야구의 미래로 평가받는 이영하에게 큰 경기 선발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16일 일본전에 차우찬이나 이영하가 등판한다면 17일 결승전에는 양현종과 김광현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이 결승전에 올라오면 한일전에 원투펀치가 연이어 마운드에 오르는 보기 드문 장면도 연출될 수 있다.



김경문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감독이 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예선라운드 C조 대한민국과 쿠바와의 경기에서 코칭스태프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입장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김경문 감독은 9일 일본 출국에 앞서 "첫 경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

했다. 대회 2연패, 한일전도 중요하지만 김경문 감독의 초점은 일단 대만, 호주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뉴스1

MLB도 관심 집중...김광현 가치 더 높아질까



김광현(31)에 대한 관심이 메이저리그에서도 뜨겁다.

MLB 트레이드 루머는 10일(한국시간) "다수의 구단들이 김광현을 지켜보기 위해 스카우트를 파견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미네소타, LA 다저스 등 10개가 넘는 구단의 스카우트들이 현장을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광현은 아직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아니어서 메이저리

그에 진출하려면 구단의 허락이 필요하다. 현재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가 진행 중이어서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김광현은 구단에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MLB 트레이드 루머는 "김광현은 지난 시즌 KBO리그에서 190⅓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2.51을 기록했다. 탈삼진을 180개

를 기록하는 동안 볼넷은 단 38개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김광현은 FA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꺼려하는 구단들에게 옵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포스팅 시스템 절차를 밟고 있지만 현지에서도 김광현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팬그래프닷컴은 최근 FA랭킹에서 김광현을 41위에 올려 놓기도 했다.

팬그래프닷컴은 "김광현은 올림픽 금메달, 프리미어12 우승, KBO리그 우승 4회 등 커리어에서 많은 승리를 기록해온 선수"라며 "20대 중반까지는 볼넷 비율이 나쁜 선수였지만 팔꿈치 수술 이후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광현은 최근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앞에서 인상적인 투구

를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7일 캐나다와의 프리미어12 C조 2차전에 선발로 나서 6이닝 1피안타 2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김광현의 150km가 넘는 빠른 공과 날카로운 변화구 앞에 캐나다 타선은 힘을 쓰지 못했다.

김광현은 대표팀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슈퍼라운드에서 한국은 미국, 대만, 멕시코, 일본 등과 경기를 해 결승 진출을 노린다.

김광현은 2015년 열린 프리미어12 초대 대회 결승전에서 승리투수가 되는 좋은 기억도 갖고 있다. 당시 미국과의 결승에서 김광현은 선발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하며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김광현은 올해 슈퍼라운드에서도 선발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광현이 많은 시선이 쏠린 국제대회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1

황대현,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男 1000m 금메달...박지원·김지유도 금

황대현(20·한국체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000m에서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황대현은 10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9-20 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6초553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대현은 지난 월드컵 1차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1000m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은메달은 캐나다의 스티븐 두보아(1분26초739), 동메달은 중국의 한텐위(1분27초078)에게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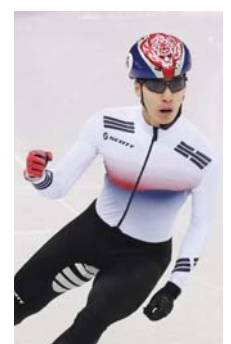
남자 1500m와 여자 1500m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다. 박지원(1500m)은 박지원(23·성남시청)이 2분26초25로 통과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이준서(19·한국체대)는 2분26초546으로 중국의 안차이(2분26초453)에 밀려 동메

달을 수확했다.

여자 1500m에서는 김지유(20·성남시청)가 2분36초255로 금메달, 노도희(23·화성시청)가 2분37초570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휘민(17·평촌고)은 여자 1000m에서 1분31초268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캐나다의 킵 부랭(1분30초827)에는 밀렸지만 중국인 관커신(1분31초343)을 제치고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준서, 노도희, 박지원, 서휘민 등이 출전한 혼성계주 2000m에서는 2분40초564로 동메달을 따냈다. 중국이 2분40초246으로 금메달, 러시아가 2분40초389로 은메달을 가져갔다.



명품하는 행복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